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

기출문제, 출제의도 및 해설

2014. 11. 22(토) 오전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토 오전)

논술고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고사장번호() 지원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임.
2. 반드시 문항별 지정된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할 것.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5. 제목을 쓰지 말 것.
6. 답안 작성은 검정색 펜만을 사용할 것.

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1>

According to Carlo Ginzburg, the potential of human beings to experience authentic feelings of pity and guilt is greatly determined by the distance of human beings to the particular object, namely, the distance in actual historical time, the distance in physical space, and the distance in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subjects. He introduces Aristotle's famous remark on this topic: "The persons men pity are those whom they know. Men also pity those who resemble them in age, character, habit, and position." He also examines how the moral implications of distance have been explored in literature. Such effects are clearly shown in passages like "We agree that perhaps distance in space weakened all feelings and all sorts of guilty conscience, even of crime" (Diderot, *Conversation of a Father with his Children*), and "In India the English are killing thousands of men as good as we are; and at this moment the most charming woman is there being burnt, but you have had coffee for breakfast all the same?" (Balzac, *Father Goriot*).

Matthew Wylie, "Moral Crime and Moral Punishment"

<자료 2>

“무엇 때문에 내가 신이 만든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지 이제부터 너에게 설명해 줄게. 내게 필요한 것은 너에게 나의 관점을 제시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인류 전반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만, 차라리 어린아이들의 고통만을 다루는 편이 낫겠어. 이렇게 하면 내 논의의 규모가 열 배 정도는 줄어들겠지만 말이야. (...) 너는 이게 이해가 되니, 아직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제대로 짐작할 수 없는 어린 존재가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다고 치자. 그 아이가 어둡고 추운 더러운 곳에서 조막만한 주먹으로 자신의 찢어진 가슴을 치면서 ‘하느님 아버지’를 향해 자기를 보호해 달라며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 온순한 피눈물을 흘린다면 — 이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너는 이해하겠니. (...) 내 말을 들어봐, 나는 보다 더 명확한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린아이들만을 예로 들었던 거야. 지표면에서부터 중심부까지 이 땅을 흠뻑 적시고 있는 인류의 나머지 눈물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 일부러 내 주제를 축소한 거야. (...) 골백번이나 반복하건대 — 문제는 수도 없이 많지만, 내가 그저 아이들만을 예로 들었던 것은 이로써 내가 말해야 할 것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해지기 때문이지.” (...)

“대답을 해봐, 그러니까 만일 네가 결국에 가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네 손으로 직접 인류의 운명의 건물을 지어 올리는데, 하지만 이 일을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겨우 단 하나의 조막만한 창조물을, 뭐 예컨대 작은 주먹으로 가슴을 쳤던 그 어린애와 같은 창조물을 괴롭히지 않으면 안되게 생겼고, 그 아이의 고통어린 눈물 위에 그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너라면 이런 조건에서 건축가가 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을까? 아니, 동의하지 않을거야. (...)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서둘러 입장권을 반납하려는 거야. 나는 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에게 그 입장권을 극히 정중하게 반납하는 거야.”

도스토예프스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문제 1]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문제 2] <자료 2>에 제시된 입장에 근거해서 <자료 1>의 견해를 비판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II. <자료 3~5>는 제시된 범주, 판단, 예측을 성립시키는 ‘전제들’을 본문 중에 포함하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3>

1789년 프랑스대혁명 과정에서 부르주아 집단은 뚜렷한 공통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이념적 기초는 철학자들과 경제학자들에 의해 정식화된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이었다. 이는 그들의 정치적 지향점이었고, 그 안에는 그들의 이해가 관철될 수 있는 기본적인 골격이 전제되어 있었다. 같은 해에 발표된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자유롭게 살아가며, 법 앞에 평등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선언서에는 새로운 질서를 주도한 부르주아의 구상이 요소요소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문건은 귀족 특권의 위계적 사회에 반대하는 선언이었지만, 인간 및 시민을 표방하는 신흥 부르주아 세력이 그들 이외의 다른 사회 집단 - 무산계급, 여성 등 - 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완전한 평등주의적 사회를 지향하고 있던 것은 아니다. 이 선언서에서 사유재산은 신성하고 양도할 수 없으며 침범할 수 없는 자연권으로 전제되어 있다. 또한 법 앞에서 평등한 사람에게 출세의 가능성이 재능에 따라 평등하게 열려 있음도 밝히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대부분의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은 대의제적 의회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켜 나가는 재산소유자의 과두정치에 기초를 둔 정치체제를 옹호했다. 이런 의미에서 1789년의 고전적·자유주의적 부르주아와 1789년에서 1848년 사이의 자유주의자는 민주주의자라기보다는 시민적 자유를 옹호하고, 납세자와 재산소유자에 의한 통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었다.

Eric Hobsbawm, *The Age of Revolution 1789~1848*

<자료 4>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 예측,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바람, 믿음, 가식과 같은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심리 상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심적 표상 체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 능력은 유아에게서도 관찰된다.

예를 들어, 셸리가 구슬을 바구니에 넣고, 뚜껑을 덮은 뒤, 자리를 떠났다고 해보자. 셸리가 없는 동안, 앤이 바구니에 있던 구슬을 꺼내 상자로 옮겼다. 실험에 참가한 아동이 이 상황을 영상을 통해 보고 있다.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아동에게 셸리가 돌아왔을 때 어디에서 구슬을 찾을지를 질문한다. 아동이 셸리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셸리가 구슬의 위치가 바뀐 것을 모른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아동에게 보여준 영상에서는 앤의 개입으로 인해 셸리가 믿고 있는 구슬의 위치와 실제 구슬의 위치가 달라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험에 참가한 아동은 실제로 구슬이 상자에 들어있음을 알면서도 셸리가 구슬을 찾기 위해 바구니를 열어볼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Michael Gazzaniga (ed.), *The New Cognitive Neuroscience*

<자료 5>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영어가 곧 인터넷 언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상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 사용이 꾸준히 증가했다.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영어 사용 인구가 80퍼센트에 이른다고 보고되던 것이, 2001년 미국인터넷협회 자료에 따르면 45퍼센트 정도로 줄어들면서 인터넷 상에서 영어의 주도적 지위가 위협받기 시작했다. 아래 표는 2010년 초 인터넷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상위 10개 언어를 요약한 것이다. 영어가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는 있으나 인터넷 사용자 수로 볼 때 중국어에 조만간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

언어	전체 인터넷 사용자 비율	인터넷 사용자 수 (단위: 백만)	인터넷 언어 성장률 (2000~2009)
영어	27.5	496	252
중국어	22.6	408	1,162
스페인어	7.8	140	669
일본어	5.3	96	104
포르투갈어	4.3	78	924
독일어	4.0	72	161
아랍어	3.3	60	2,298
프랑스어	3.2	57	375
러시아어	2.5	45	1,360
한국어	2.1	37	97
기타 언어	17.4	314	516
총계	100.0	1,802	—

David Crystal, *Internet Linguistics*

[문제 3] <자료 3>에 제시된 “인간 및 시민” 범주의 전제와 <자료 4>의 실험대상 아동에게 기대되는 응답에 깔려있는 전제를 각각 밝히고, 해당 전제가 바뀌었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각각 논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자료 5>에서 영어가 조만간 인터넷 언어 1위 자리를 중국어에 내줄 것이라는 예측의 근거를 표에 의거하여 밝히고, 그 예측의 타당성 여부를 <자료 3>과 <자료 4>에서의 전제의 역할을 고려하여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